

전북현대, K리그1 첫 경기서 역전패

부천FC1995에 3-2로 패배... 불안한 출발

프로축구 K리그 '챔피언 전북현대'가 시즌 첫 경기에서 '승격팀' 부천 FC1995에게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부천은 지난 1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하나은행 K리그 2026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2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승리를 거둬 창단 최초로 1부 리그를 밟은 부천은 첫 경기에서 챔피언을 제압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2025시즌 K리그1에서 통산 10번째이자 4년 만의 우승을 차지했던 전북은 코리아컵까지 우승하며 더블(2관왕)을 달성했다. 하지만 사령탑 변화가 있었다. 팀에 우승을 안겼던 거스 포엣 감독이 팀을 떠났다. 전북은 K리그1 김철삼 감독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은 정정호 감독에게 지휘봉을 건넸다. 정정호 감독은 지난달 21일 대전 하나지프와의 슈퍼컵에서 2-0 완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이날 개막전에서는 역전패를 당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전북은 전반 12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다. 프리킥 혼전 상황에서 공을 잡은 이동준이 침착한 오른발 마무리로 승부의 균형을 짰다. 부천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전반 25분 '헤이스' 갈레고가 동점골을 터트렸다. 전북 수비 지역에서 압박을 가져가던 갈레고는 박지수의 롱패스 실수를 가로챘던 뒤 상대 박스 안으로 질

주했다. 그리고 전북 수문장 송범근과의 단독 찬스에서 왼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부천의 사상 첫 1부 리그 득점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전북은 다시 경기를 리드했다. 후반 8분 이승우가 울린 코너킥이 부천 수비수 머리에 맞았다. 높이 뜬 공을 박스 안에 있던 이동준이 왼발 시저스킥으로 연결했다. 이 공은 골대를 맞고 득점이 됐다. 부천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후반 37분 갈레고의 헤더 패스를 받은 몬타뇨가 박스 앞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기록했다. 후반 40분 전북의 김영민이 결승골을 터트리는 듯했다. 측면에서 올라온 공을 쇄도하던 이승우가 슈팅했으나 골대를 때리고 말았다. 공이 김영민을 향해 땀고 김영민이 헤더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주심은 VAR(비디오관독시스템)을 통해 이승우의 슈팅 과정에서 오프사이드가 있었다고 판단해 득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기를 넘긴 부천은 후반 49분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다. 추마시가 안타현을 막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했다. 키커로 나선 갈레고가 후반 51분 왼발로 득점에 성공, 경기는 부천의 역전승으로 막을 내렸다. 부천은 사상 첫 1부 리그 경기에서 '대어' 전북을 잡으며 기분 좋은 첫발을 내디뎠다. /뉴스



전북현대 이동준 선수가 지난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라운드 전북 현대와 부천 FC의 경기에서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한 2026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가)가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자전거 고장 무주 '재입증'

대차리서 '2026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 성료

무주군이 전국 규모 장애인 사이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자전거 고장'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한 2026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가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지체·정각·시각·뇌병변·지적장애 선수 1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선수 가족과 관계자 등을 포함해 하루 평균 300여 명이 현장을 찾았다. 경기는 소이나무공원을 출발해 강변도로와 대차리 원형교차로, 차산마을을 거쳐 다시 소이나무공원으로 돌아오는 5.3km 구간에서 진행됐다. 겨울의 찬 기운이 체 가지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은 완주를 향한 의지를 다지며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참가 선수들은 "겨울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무주 강변의 수려한 경관이 큰 힘이 됐다"며 "코스 완성도와 지역 주민들의 배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 통제와 안전 유도,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대회에 앞서 경기 구간 내 잔설과 잔석, 토사 등을 제거하는 등 환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무주그라운드·메디오폰도대회와 문체부장관기 생활체육자전거대회에 이어 이번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까지 잇따라 개최하며 6500여명이 무주를 찾았다"며 "무주가 명실상부한 '자전거 고장'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도 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손홍기 기자

제107회 동계체전 성료... 종합 1위 '경기도' | 알파인스키 김소희 'MVP'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동계체전)'가 나흘간의 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동계체전에는 선수 2797명과 임원 1583명 등 총 4380명의 17개 시·도 선수단이 참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의 감동과 열기를 이어받았다. 시도별 종합 순위에선 경기도가 322개 메달(금 118개, 은 107개, 동 107개)로 총 1611점을 획득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울이 152개 메달(금 59개, 은 41개, 동 52개)과 함께 총 1073.5점으로 종합 2위, 강원이 112개 메달(금 32개, 은 41개, 동 39개)을 따 총 921점으로 3위에 올랐다. 대회 최우수선수(MVP)는 알파인스키 김소희(30·서울시청)가 차지했다.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쇼트트랙 김길리(22·성남시청)와 최민정(28·성남시청)은 2관왕,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선(27·의정부시청)과 정재원(25·의정부시청)은 3관왕에 올랐다. 또 한국 스노보드 역사상 처음 동계



제107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최우수선수 가 된 김소희.

하프파이프 종목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4관왕 10명, 3관왕 22명, 2관왕 49명 등 81명의 다관왕이 탄생했다. 한편 이번 동계체전 종합시상식은 오는 13일 오후 2시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과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손흥민 2개 도움... LAFC, MLS서 휴스턴 2-0 완파

앞서 인터 마이애미와 리그 개막전 3-0 완승 이어 2연승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 핵심 공격수 손흥민(34)이 2개 도움과 상대 선수 2명 퇴장을 이끌어내며 휴스턴 다이노스전 완승에 큰 공을 세웠다. LAFC는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한국 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헬 에너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휴스턴과의 2026 MLS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앞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9·아르헨티나)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와의 리그 개막전 3-0 완승에 이어 2연승을 달렸다. 최전방 공격수로 올해 공식전 4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짙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뉴스

